

항상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실.수.

정말 얄밉고 정말 괴로운 놈이죠.

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문제 중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이 실수인데요.

많은 전문가들, 분석가들,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이 있긴 한 것일까요?

첫 번째는 '실력 부족'입니다.

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좁을수록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게 되고 그러다보면 계산 실수나 접근 방법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.

다양한 방법을 알고 그런 것을 자유롭게 쓸 정도로 익숙하다면 그만큼 계산실수를 할 확률은 줄어듭니다.

아직 공부가 덜 된 것입니다.

이런 경우 해결책은 뻔하군요.

좀 더 넓은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지 파악해야 합니다.

그 방법이 이 곳에 쓰이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반대로 다른 방법은 왜 쓰면 안 되는 지 마치 다른 이에게 설명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.

두 번째는 '성격'입니다.

저도 약간 덜렁대는 편인데요.

기본적으로 많이 덜렁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

이런 학생은 비단 수학 뿐 만 아니라 타 과목에서도 이런 실수가 많이 들어나죠.

이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는 '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른 경우', '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1/2를 하지 않은 경우', '보기 ㄱ, ㄴ을 골라 놓고 ㉠ㄱ, ㄴ, ㄷ 을 골라서 틀리는 경우' 이런 정말 사소한 그래서 더 슬픈 것들이죠.

그러나 이런 실수를 계속 하면서 "성격인데 어떻게 고치나요 ㅠㅠ" 라고 치부하기에 수능은 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.

해결책에는 일단 평소 풀 때부터 스스로 최면을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.

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과 글은 힘이 강합니다.

생각만으로 바뀌기 힘들다면 말과 글로 바꾸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"오늘 난 실수를 하지 않는다" 라고 외친다던지 모의

고사 시험지를 받아서 이름과 수험번호를 쓴 뒤 밑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“실수란 없다” 라고 쓰고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.

남이 보기에 이상해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**그것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하면 스스로가 알아채고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**

세 번째는 **‘계산 과정의 지지분함’**입니다.

남이 보기에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 심지어! 자신이 쓴 글씨인데 ‘헐, 내가 뭐라 쓰거지’ 라는 생각이 드는 악필이 있습니다.

컴퓨터의 글씨처럼 정자로 예쁘게 쓰면 좋겠지만 그냥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로만 써도 좋습니다.

또한 글씨뿐만 아니라 **계산을 하는 습관**도 해당합니다.

이곳에서 찢끔 저곳에서 찢끔. 왜.... 문제와 보기 사이 그 좁은 곳에 $\pi\pi$ 계산을 하시려 하십니까...

여백은 충분합니다. 밑으로 한 줄, 한 줄 써 내려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.

평소에 문제를 풀 때부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.

다만!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안 풀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

그래도 **차근차근 계산 하는 버릇이 완벽해져있으면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흥분하는, 가슴이 지나치게 뛰어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예방해 줄 것입니다.**

네 번째는 **‘약점에 대한 스스로의 의기소침’**입니다.

첫 번째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.

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로그 그래프 문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데요. 반면에 미적이나 기백은 좋아합니다.

실제로 실수의 빈도를 보면 싫어하는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나더군요.

이것 또한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.

저는 **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단원이나 실수를 많이 하는 단원이 약점이라 생각해서 모의고사를 모아둔 뒤 빈도를 확인하여 EBS나 남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만 심도있게 다양하게 풀려고 했습니다.** (이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.)

하루에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. 2~3문제만 연습을 해도 의기소침으로 인한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.

실수를 하는 유형에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.

한 가지 더 제 노하우를 밝히자면 그동안 보셨던 모의고사를 꼭 모아보세요.

그런 뒤 **노트**의 한 쪽 면에는 **대단원** 별로 **써놓으시고** 다른 쪽 면에는 **문제의 유형을** **써주세요.** (ㄱ, ㄴ, ㄷ 문제, 넓이 구하는 문제, 발견적 추론 문제, (단, ~~~~~) 이 들어있는 문제 등)

그리고 바를 정자로 한 문제 한 문제 개수를 세보세요.

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**약점 단원**과 항상 “아, 실수였네. 다음 번엔 안 틀릴꺼야” 라 하고 넘겼던 **자신의 실수의 패턴**이 보이실 것입니다.

약점 단원은 4번째 유형에서 설명하듯 하루에 2~3문제만 제대로 푸시고 실수의 패턴은 조그만 수첩에 적어서 모의고사에 수학영역 전 쉬는 시간 10분 동안 보시면서 **마인드 컨트롤** 하는 데에 쓰세요. 물론 수능에도 똑같이 그것을 보세요.

어차피! 수능 전에 문제 하나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한 문제를 보다가 긴장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.

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도 불안감을 증폭하죠.

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‘이제는 이런 실수 안 할꺼야. 침착하자’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.

실수도 실력입니다. 실력은 준비된 자만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.